

10대를  
위한

# 나의 첫 고전 읽기 수업

★ 독서 활동 노트 ★  
학생용



공부 유형 테스트	• 2
나만의 '인생 책' 월드컵	• 6
사고력을 높이는 끝장 토론	• 8
내가 직접 논술 문제를 출제한다면	• 12
저자의 말	• 14



다른출판사 블로그에서  
학생용/교사용 독후활동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darun\\_pub](http://blog.naver.com/darun_pub))





## 공부 유형 테스트

- 1.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의 유형을 ‘소유 지향형’과 ‘존재 지향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에 적용해 쉽게 말하면 ‘암기하는 유형’과 ‘이해하는 유형’이에요.**

### 암기하는 유형의 특징

- 교과서에 나오는 말은 일단 믿는다.
-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은 최대한 다 필기한다.
- 교과서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하지 않는다.
- 시험공부를 할 때 교과서와 필기 내용을 달달 외운다.
- 발표 준비를 할 때 발표문은 드라마 대본처럼 자세하게 쓴다.
- 발표할 때 발표문의 내용을 전부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 예상 못한 질문을 받으면 쉽게 당황한다.

### 이해하는 유형의 특징

- 교과서에 실린 말이어도 자주 의심한다.
- 수업 시간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필기한다.
-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어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한다.
- 시험공부를 할 때 원리를 이해하는 데 집중한다.
- 발표문은 핵심만 간단하게 메모해 준비한다.
- 발표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근거 중심으로 진행한다.
- 예상 못한 질문을 받으면 그냥 생각나는 답을 말한다.

〈암기해야 할까, 이해해야 할까?〉 중에서

(1) 나는 암기하는 유형일까요, 이해하는 유형일까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적어 보세요.

(2) 그 유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3) 그 유형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 암기하는 유형과 이해하는 유형의 독서 습관이 궁금하다면 책 125쪽으로



## 수업 1

2. 《걸리버 여행기》는 주인공 걸리버의 신비로운 모험을 그린 소설입니다.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는 이 소설에서 인성과 실력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 질문을 던져요.

“소인국에서는 사람을 채용할 때 뛰어난 능력보다 훌륭한 인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 누구든 어느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어떤 업무든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기며,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이 필요한 공적인 일은 없다고 믿는다. 한 세대에 겨우 세 명도 나오기 어려운 천재만이 해낼 수 있는 공적인 직무를 신이 만들어 놓았을 리 없다는 것이다.”

《걸리버 여행기》의 한 대목이다. 상류층만 교육의 혜택을 받고 공직 사회로 나갈 수 있었던 18세기 영국의 귀족 사회를 비판한 내용이다.

〈인성이 중요할까, 실력이 중요할까?〉 중에서

(1) 나는 ‘인성이 좋은 사람’과 ‘실력이 좋은 사람’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나에게 맞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대학 입시 전형에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자기 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을 평가합니다. 인성을 점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만약 자신이 기업의 경영자라면 ‘실력은 좋는데 인성이 나쁜 직원’과 ‘실력은 부족하지만 인성은 좋은 직원’ 중 누구를 채용할까요?



## 나만의 '인생 책' 월드컵

1. 책에 소개된 고전 중 가장 읽고 싶었던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 작품을 선택한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그 작품을 집필한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언제, 어느 나라에 살았고, 또 어떤 작품을 집필했나요?
3. 그 작품으로 독서 토론을 한다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4. 책에 소개된 고전 외에 인상 깊게 읽은 책들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 읽으면서 슬펐던 책과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2) 읽으면서 화났던 책과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3) 읽으면서 웃겼던 책과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4) 그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을 고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 사고력을 높이는 끝장 토론

1. 다음은 안톤 체호프의 단편소설 <내기>의 줄거리입니다. 이 글을 읽고 “중신형은 사형보다 관대한 처벌일까?”를 주제로 토론해봅시다.

한 부유한 은행가가 파티를 열었다. 기자, 변호사, 학자 등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식인들이 몰려들어 파티를 즐겼다. 이들은 사형과 중신형을 두고 어느 쪽이 더 윤리적인 처벌인지 토론하기 시작했다.

은행가는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중신형보다 차라리 사형이 더 관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물다섯 살의 전도유명한 변호사는 비록 고통을 겪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중신형에 손을 들었다.

둘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고, 거의 이성을 잃다시피 한 은행가가 내기를 하나 제안했다. 자신의 집 바깥채에서 감금 상태로 5년간 버텨 낸다면 200만 루블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19세기 러시아에서 200만 루블은 지금의 40~50억 원에 달한다. 패기만만한 변호사는 이 내기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5년이 아니라 15년간 감금되어 있겠다고 선언한다. 이로써 두 사람 간의 무모한 내기가 시작된다.

<중신형이 사형보다 관대한 처벌일까?> 중에서

(1)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 보세요.

(2)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예측해 보세요.

(3) 위의 주장을 반박할 새로운 주장과 근거를 적어 보세요.



### 수업 3

## 2. 다음은 장 그르니에의 《섬》에 실린 산문 〈고양이 물루〉의 한 장면입니다. 이 글을 읽고 동물 복지를 주제로 토론해 봅시다.

그르니에는 고양이 물루를 지극 정성으로 돌본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한다. 그르니에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마침 가출을 했던 물루가 다리와 눈을 다친 채 돌아온다. 이사를 하려면 중간에 여러 번 숙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물루를 동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해결책은 이웃이나 지인에게 잠시 맡기는 것일 테지만, 불행하게도 그르니에의 주변에는 믿고 맡길 만한 사람도 없었다.

고민하던 그는 물루를 안락사시키기로 결심한다. 그냥 버려두었다간 주변의 적들에게 괴롭힘당하며 처참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었다. 물루가 자주 상처를 입고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동네에 적이 많은 것이 분명했다. 사랑하는 반려묘가 괴롭고 힘든 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르니에에게 생각만으로도 괴로운 일이었다.

안락사시키기로 한 날 그르니에는 마치 사형수에게 마지막 만찬을 선사하듯 물루에게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인다. 그런 다음 수의사를 찾아가 물루를 안락사시키고 정원에 묻는다.

〈유기동물 안락사는 정당한 일일까?〉 중에서

(1) 고양이 물루는 인간의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면에서 오늘날 동물 보호소의 유기동물과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10일 내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합니다. 유기동물 안락사는 꼭 필요한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키울 자격을 법으로 정하면 어떤 장단점이 생길까요?

(3) 식용동물도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처럼 보호해야 할 대상일까요?



- 3.** 그 사건을 주제로 논술 시험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각각 적어 보세요.

[문제]

[찬성]

[반대]

## 저자의 말

---

고전에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작가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 통찰이 당대 사회의 모습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미래 사회를 예견하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각각의 고전이 21세기 오늘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된다면 고전을 감상하는 재미가 훨씬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 논술 시험에 대비한 글쓰기 훈련과 교과 공부를 위한 배경 지식을 쌓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박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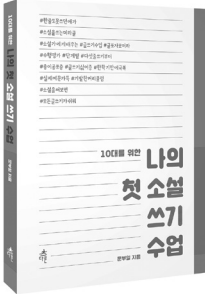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중고등학교 교사로 일합니다. 지은 책으로는 《오래된 새 책》, 《독서만담》, 《고전적이지 않은 고전 읽기》, 《이토록 재미난 집콕 독서》, 《그래봤자 책, 그래도 책》 등이 있습니다.

## 이런 독자에게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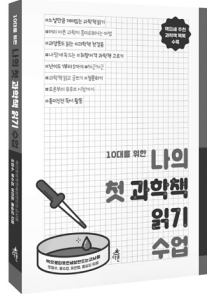
---

- 고전, 읽기는 싫는데 왜 읽는지는 궁금하고 다 읽을 시간은 없다
- 책 읽는 재미를 제발 느껴보고 싶다
- 독후감을 기가 막히게 잘 쓰고 싶다
- 토론 수업 때 말을 잘하고 싶다
- 독해력을 키워서 논술에 대비하고 싶다
- 교과 공부와 관련된 책을 재미있게 읽고 싶다
- 창의력과 논리력을 함께 기르고 싶다

# 세상의 모든 읽기·쓰기와 친해지는 나의 첫 수업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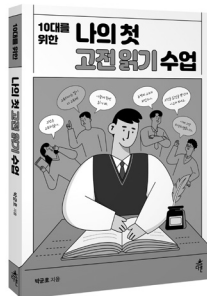
**10대를 위한  
나의 첫 소설 쓰기 수업**  
소설가에게 직접 배우는  
살아 있는 글 쓰기 수업  
문부일 지음 | 224쪽 | 14,000원



**10대를 위한  
나의 첫 과학책 읽기 수업**  
소설만큼 재미있는  
과학책 읽기  
조영수, 류수경, 유연정, 홍승강 지음 |  
240쪽 | 14,000원



**10대를 위한  
나의 첫 시 쓰기 수업**  
게임하듯 놀면서  
배우는 글 쓰기  
박용진 지음 | 240쪽 | 14,000원



**10대를 위한  
나의 첫 고전 읽기 수업**  
논술 이슈가 보이는  
고전 독서 가이드  
박균호 지음 | 220쪽 | 14,000원



#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도서출판 다른은 2004년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현재까지 260여 종의 도서를 출간했으며 대부분의 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시교육청, 세종도서 문학나눔 및 교양부문,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행복한아침독서, 어린이도서연구회, 학교도서관저널 등에서 우수도서 및 권장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든다”라는 믿음으로 생태, 평화, 인권, 나눔에 관한 책을 꾸준히 만들어 온 도서출판 다른은, 오늘도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청소년 신간 정보와 활동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면?



도서출판 다른 뉴스레터  
구독 신청

# 《종의 기원》에서 감염병 이슈를 읽어 낸다고?

# 창의력과 논리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 가장 실용적인 고전 읽기

# 사고력을 높이는 끝장 토론 수록

# 교과 공부와 논술 대비를 한 번에



## 10대를 위한 나의 첫 고전 읽기 수업

논술 이슈가 보이는  
고전 독서 가이드

박균호 지음 | 220쪽 | 14,000원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7길 3-12 N빌딩 2층

전화 02-3143-6478 팩스 02-3143-6479 이메일 khc15968@hanmail.net

블로그 [blog.naver.com/darun\\_pub](http://blog.naver.com/darun_pub) 페이스북 [/darunpublishers](https://www.facebook.com/darunpublishers)